

2012 여수 WFB 대회 성공 기원

세계불교도대회 한국대회 조직위 명예대회장 자승 스님, 성공 다짐

한국에서 열리는 전 세계 불교인들의 만남인 제26차 WFB한국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위원회가 11월 23일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오른쪽)은 제26차 세계불교도대회 한국대회 조직위원회 명예대회장을 맡았으며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대회장, 호남 제6교구본사(송광사) 화엄사 백양사 대홍사 금산사 선운사 주지가 공동대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사진 왼쪽)이 상임공동 대표를 맡았다. 집행위원장에는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 사무총장에는 영정호 광주국제영화회 상임이사를 각각 위촉했다.

1990년 서울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한국대회 출범식에는 자승 스님, 원로의원 명선 스님, 영조 스님,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을 비롯한 500여명의 대중들이 참가했다.

출범식은 불교의례에 이어 영조 스님의 고불봉 경과보고 대회기 전달 위촉장 수여 자승 스님 치사 김의정 신도회장 인사말 펠름 세계불교도대회 사무총장의 축사 성공 기원 떡 케익 나눔식 순으로 진행됐다.

자승 스님은 치사에서 "2012 WFB한국대회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해법을 찾는 진지한 논의가 될 것이며, 불교가 사회와 인류에게 생태환경사상을 실천하면서 공동운명체로서 동업중생이라는 동시적 존재성을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불교도우의회 관 와나케티 회장도 펠름 세계불교도대회 사무총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환경문제와 지구촌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의 해양, 기후, 식량생산 등의 지속성을 위해 개최되는 엑스포와 세계불교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2년 6월 여수 엑스포기간에 함께 개최되는 제26차 WFB세계불교도대회와 제17

차 WFB세계불교도청년대회, 제9차 WBU 세계불교대학회의는 전세계 1000여명의 불교지도자와 10만 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6월 11-16일 '21세기의 불교 생태환경사상과 수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오심 스님의 달빛 고운 절에서

왜 침묵이 필요한가?

어느 유명한 분이 내게 물었습니다. "입이 왜 필요한가?"라고 묻기에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뜻 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머뭇거리던 나는 "먹는 일도 입이 해야 할 것이고 말[言]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분은 껄껄 웃으시며 "맞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답을 원했느냐"고 되물었더니 그 분은 나지막이 웃으며, "입은 많은 일을 하고 그 속에 혀도 온갖 갖은 일을 도맡아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침묵(沈黙)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하고 공감되는 말씀에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병을 얻게 됐는데, 오로지 암사자의 젖만이 왕의 병을 낫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서서 자기가 구해왔노라며 새끼 사자 한 마리를 구해 갖고는 사자굴로 가 새끼사자를 암사자에게 줬습니다. 얼얼 좀 지나자 그는 암사자와 꽤나 친숙해졌고, 드디어 그 암사자의 젖을 조금씩 짜낼 수 있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 속에서 자신의 신체 각 부위들이 서로 자기의 공로로 인해 암사자의 젖을 구할 수 있었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먼저 말이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없었다면 사자굴까지 갈 수 있었겠나?"

"만일 눈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곳까지 올 수 있었겠나?"

서로 자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노라며 떠들어대고 있을 때, 느닷없이 허가한 마디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없어서 말을 할 수 없다면 너희들은 아무 쓸모가 없었을 거야." 혀의 말을 듣고 다른 신체 부위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혀야말로 아무 공로도 세우지 못하면서 큰소리만 친다고 우습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사나이는 잠에서 깨어나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암사자의 젖을 왕 앞에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의 젖이입니다." 혀가 엉뚱하게 말하는 바람에 사나이는 매를 흔든 뒷에야 궁궐을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혀를 비롯된 신체의 각 부위들은 혀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두뇌·심장 등은 물론 눈, 코, 팔다리 등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치의 허가 나타내는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말 한 마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오심 스님(월봉사 주지, 중앙총회의원)

부처님 향한 마음으로 공양

대해노인복지센터 자비나눔 만발

해마다 연말이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광주에 있는 불교계 복지단체가 특별한 나눔 행사를 펼쳐 주목을 끌고 있다. 아름다운세상 대해노인복지센터(대표 무진)는 11월 12일 광주 남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동구와 남구지역 어르신 500여명을 초청해 '제3회 자비나눔 만발공양'을 가졌다. 또한 1년간 봉사활동을 펼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식도 마련했다.



윤기주, 박진호, 김성안 씨는 구형장상을 수상했다. 김경숙, 김호자, 윤금동 씨는 22교구 본사 대홍사 주지스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감사패는 광제한의원 방기봉 원장, 이숙경 가정의학과 이숙경 원장에게 수여됐다. 지역 내 5명의 초등학생에게도 장학금이 전달됐다.

무진스님은 인사말에서 "앞으로도 가깝고 정다운 이웃처럼 자주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어르신 사회참여 우리가 계속 앞장을"

고창군 노인복지회관 복운일자리사업 해단식

조계종 24교구 선운사(주지 범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창군 노인복지회관(관장 도완)이 올 한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자축하는 '2011년 복운일자리사업 해단식'을 복지관 강당에서 가졌다.

고창군 노인복지회관은 3월~11월에 걸쳐 진행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고창 노인복지회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공익형·복지형·교육형·인력파견형 사업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보고와 우수 활동자에 대한 시상 및 지난 활동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앞으로 일자리사업에 대한 방향 및 전망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관음성지 향일암 연내 복원 마무리

해돋이·해맞이 축제 정상 개최

2009년 12월 원인모를 화재로 대웅전 등이 모두 소실된 향일암이 12월 중 복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해돋이와 해맞이 축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2009년 화재로 소실된 대웅전, 종각, 종무소 등의 복원공사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11월 15일 밝혔다.

향일암 주지 원문 스님은 "12월말까지 소실된 전각 등을 복원해 예정대로 일출제와 절야기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이번 복원봉사는 관음성지를

다시 복원하는 의미와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1월 1일 예정된 일출제는 여수 지역 주요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타종식, 108참회기도, 일출관람이 진행된다. 전남도 문화재자료 40호인 향일암 복원공사에는 국비 1억원 도비 5억6500만원 시비 3억8500만원 사찰부담 1억5000만원 등 총 12억원이 투입됐다. 또한 이번 공사에는 여수엑스포 관련 템플스테이 숙소로 사용될 요사채가 같이 마련된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부산불교지도자포럼 5주년 창립제

부산불교계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구성된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이 창립 5주년을 맞았다.

부산불교지도자포럼(회장 허인구)은 11월 22일 코모도호텔에서 10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허인구 회장은 "불교계 환경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12월 3일, 백련결사의 현대적 의의 조명

강진 백련사, 제1회 학술세미나

강진 백련사(주지 여연)는 '원묘국사 요세와 백련결사운몽'이라는 주제로 제1회 백련결사 학술세미나를 12월 3일 강진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백련결사 학술세미나는 고려시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 개혁을 위한 불교운동이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동국대 김성현 교수의 사회로 최동순 동국대 교수가 '원묘국사 요세의 생애와 수행'을 주제로, 황인규 동국대 교수가 '백련결사의 성립과 계승', 김성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고려 중후기 천태종의 전개양상과 백련결사'에 대해 각각 발표에 나선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분한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25까지
- 신고장소 : (사)민족불교조계종총무원 (문화관광부허가 2008-35호)
주소: 전북 익산시 금마면 고도 9길 85(동고도리 474-1)
- 구비서류 : 분한신고서 1부 (본종양식 총무원비치)
1.분한신고서 및 승려증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앞뒤, 서약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암등록증사본, 주지임명장사본, 사진 3장, 이력서, 각각 1부
- 신규 입종자 신고요령 : 타 종단승려는 승려증사본 및 도첩, 주민등록 등 초본, 사진 5장
- 유의사항 : 1. 본종 종도 중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종도는 탈종으로 간주함.
2. 신고기간후 본종 구총무원장발행 제증명서는 일체무효임.
3. 전항의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의 처벌을 받음.
4. 기타 상세한 문의를 총무원에 문의 바랍니다.
※ 분한 신고 후 임원 중정, 총무원, 각부 원 임원선출이 있으니 진중도는 한분도 빠짐없이시길 당부 드립니다.
- 신규 입종자 특혜
1. 사암등록증, 신분증, 도첩, 발행
2. 국세청고유번호발급신청(대행 해줌)
※ 연말정산소득 기부금영수증 자체발행 번호임.

2011. 11. 25.

(사법)민족불교 조계종 총무원

구중비상대책회장 법헌 합장
총무원 접수처 전화 063)834-3044, 017-328-3009

경주 금선사 여래선원 달마동 특별 분양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시다.

경주 조계종 금선사는 비구니스님의 수행정진 공간으로 금선선원(30세대), 여래선원 문수동(24세대), 보현동(22세대)을 완공 입주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희망하는 마음으로 2012년 3월 완공 예정을 앞두고 달마동(33세대)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도심산중으로 전국 교통망이 편리하고 주변엔 흥성이 둘러싸여 있어 산세가 수려한 경관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정진 공간으로는 최적지로 여겨지고 있어, 이곳에서 평생 함께하실 비구니스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4(임야번지 산 193-1)
- | 세대수 33세대 : 평형(10,12,13,21,23평)
- | 건물화주 지불방법(평형에 따라 다름) :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원
- | 특혜 : 계약금과 동시에 11월 30일까지 완불자에게는 장자는방 1개를 편백나무(소나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겠습니다.
- | 입주자격 : 조계종 비구니스님으로서 승가에 결격사유가 없이 심신이 건강한 승려, (승려증 복사, 주민등록등본 1통)는 제출 바랍니다.
- | 완공예정일 : 2012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주지 휴정 합장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전화 : 054)772-7171 ■ 휴대폰 : 010-3538-3879